

# 만추의 계절, 전남서 단풍길 걸으며 힐링하세요

순천 송광사담양 관방제림·구례 지리산 피아골·장성 백양사

빼어난 자연경관·풍부한 향토음식 곁들인 낭만가득 가을여행

전라남도는 11월 만추의 계절을 맞아 순천 송광사, 담양 관방제림, 구례 지리산 피아골, 장성 백양사를 '단풍길 따라 떠나는 힐링여행지'로 추천했다.

이번 추천 여행지는 단풍 명소로 사랑받는 곳으로 자연과 문화, 먹거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낭만 가득한 가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순천 송광사는 가을이 되면 경내와 조계산 숲길에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다. 특히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은 고요한 분위기에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다. 2022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의 촬영지다.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지친 일상에 쉬어가는 힐링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순천만갯벌에서 잡은 보양식 짬뽕어탕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인 웃장·아랫장의 돼지국밥을 맛보며 미식 여

행도 즐겨볼 수 있다.

담양 관방제림은 200년 수령이 넘는 느티나무, 팽나무, 뽕나무, 은단풍 등이 2km 남게 이어지는 숲길이다. 그 옆으로 흐르는 담양천의 조화가 아름다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매년 울긋불긋한 단풍이 잔잔한 담양천에 비추는 환상적 경관을 배경 삼아 사진을 남기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담양 창평국밥, 예로부터 내려오는 조리법으로 만든 담양 떡갈비 등 지역 전통 음식을 맛보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구례 지리산 피아골은 '산도 붉고(산홍), 물도 붉고(수홍), 그 사이를 걷는 사람까지 붉게 물든다(인홍)'는 뜻으로 삼홍(三紅)이라 불리는 단풍 명소다. 약 4km 단풍길 산책길을 걸으며 만추의 계절 단풍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국립공원의 자



연 생태와 함께 연곡사와 같은 역사 깊은 사찰도 둘러보며 지리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구례는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자연에서 채취한 식재료가 풍부하다. 산에서 키운 손담을 숯불에 구워먹는 산담구이, 선진강의 시원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다슬기수제미, 지리산에서 나는 다양한 채소로 차린 산채정식 등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구례 고유의 별미를 맛볼 수 있다.

장성 백양사는 예기단풍과 사찰 입구 누각 쌍계루가 연못에 비치는 풍경이 마

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으로, 사진작가들이 아침 일찍부터 찾는 출사지다. 백양사 입구부터 경내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평탄하고 오르막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천천히 걸으며 아름다운 단풍 터널을 경험할 수 있다.

장성 황룡강변 인근에서 맛과 전통을 자랑하는 순대국밥과 참깨탕, 민물메운탕, 축령산 인근에서 지역 농산물로 만든 산채나물을 곁들인 시골밥상 정식 등 다양한 산지 식재료로 만든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 /염성호 기자



## 남구, 대한민국 솔라리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신재생 에너지 성과, 광주 첫 우수 지자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한국 에너지공단과 기후위기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등에서 공동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의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남구는 6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 및 공공기관이 재생 에너지 분야의 보급 성과를 겨루는 태양광 발전 경쟁 리그에서 광주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성과를 평가하는 에너지 경진대회이다.

남구는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노력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성과 부문에서 주민 참여 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회 주최측은 남구에서 광주 최초

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하고, 신효천마을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기술개발 사업 추진으로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 점을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전담조직인 탄소중립과를 신설하고, 에너지 인식전환 주민활동가 양성·운영을 비롯해 에너지 거점센터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축제 개최 등 행정기관과 주민간 협력으로 탄소중립 실천도시의 롤모델을 만든 부분도 주요 성과의 하나로 손꼽았다.

또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서 6년 연속 선정돼 관내 주택 및 상가 1,886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6,790kW를 보급하고, 급탕 설비인 태양열 기기도 744㎡ 규모로 설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로, 앞으로도 재생 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공직자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한 모범사례를 발굴 및 포상하는 제도이다.

북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내 적극 행정 분위를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올해 4월부터

## 북구, 주민 삶의 질 높인 '5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주민 편의 향상 성과 거둔 2025년 하반기 '우수사례 5건' 선발

터 9월까지 추진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주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 4개의 항목을 종합 평가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5개 사업(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을 선정했다.

먼저 최우수상은 '공동주택 유출지하수 활용 친수공간 조성 사업' 사례로 결정됐다.

이 사업은 신축 공동주택에서 하루 1,100여 톤 발생하는 지하수를 전남대학교 용지와 서방천의 유지용수로 재활용함으로써 연간 1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을 해소하고 도심 속 친수공간의 환경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

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조성' 사업과 울여름 폭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지급 모금으로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기여한 '신속 모금 빠른 회복! 재난 속 빛난 고향사랑' 사례가 주민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아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구 전남·일신방직 일원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T/F 구성·운영 사례, '민관협력으로 수해복구 속도 UP, 주택복구 솔루션 행복동지' 사람의 집수리 봉사단 운영' 사례가 각각 장려상으로 뽑혔다. /송현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립수목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본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계획·설계·시공·관리했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시설 사업계획 또는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공사 완료 후 본인증을 받

## 광주시립수목원, 이동불편 없는 무장애시설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이어 '본인증 우수등급' 획득

을 수 있다.

시립수목원은 방문자센터·전시온실·화장실을 비롯한 내·외부 공간 전반을 심사받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BF 본인증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인증 심사에서는 접근성과 안전성, 이

용 편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시립수목원은 앞서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BF 인증 기준을 반영해 지난 2021년 6월 BF 예비인증을 받았다. 이후 본인증 획득을 위해 현장 점검과 보완 공사를 지속했다. 특히 화장실 접근 경사로 조정, 보행

로 주변 배수로 덮개 정비, 한국정원 및 산책로 주변 안전난간 정비 등 이동 불편을 최소화했다.

정준호 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무장애시설 인증 획득은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목원을 가꾸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정가 관계자는 "경쟁으로 좋은 대표자를 뽑는 게 선거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수록 비방 수위도 높아지고

무리가 따른다. 경선 후보들이 많아질 수록 각종 선거법 위반 시비와 고소·고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공천 물이라면

후보들은 저마다 권리당원 확보에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민을 위한 공약·정책은 뒷전이고 지지 당원 수만 겨루는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민주당이 약세인 지역이라면 새

인재를 발굴하는 순기능이 있겠지만, 이미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호남에서는 당심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승원 기자

## 서구, 세외수입 체납자 집중 징수 활동 추진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직접 방문... 가장자산까지 압류 추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까지를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0월 기준 총 129억 원이며 이 중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111명으로 총 51억 원에 달한다.

이에 서구는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미납부 시 차량·부동산은 물론 가장자산까지 포함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분할납부 협의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고의적 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 대응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월별 체납정리 추진상황 점검, 고액 체납자 명단 관리,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체납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박석우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의회**

**"좌석은 절반, 불편은 두배"**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이 답이다**